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겨울

방향성특강

당신의 마음을 흠치는 인문학 실험실

참가안내

초등부 문학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5강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초등부 심리 사람 마음속 비밀을 찾는 특별한 실험실 5강

★ 심리 실험을 통해 보는 마음 작동 원리

중등부 문화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 5강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나다 5강

★ 『어린 왕자』의 아름다운 은유들을 통해서 인문학을 만나다

고등부 심리 내 안에 너 있다 5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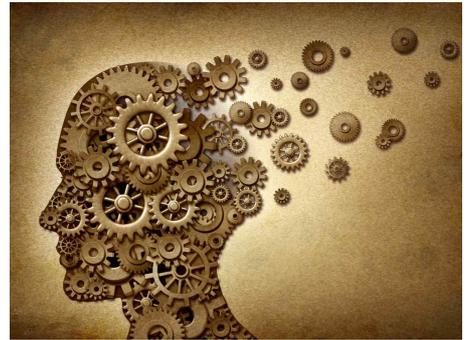
★ 심리학의 개념에서부터 확장해가는 관계의 인문학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겨울특강 “당신의 마음을 훔치는 인문학 실험실” 기획 소개 및 진행 안내

1. 초대말씀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위계적이고 경쟁적으로 짜인 직업이나 여타의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속에서 진실한 친구 하나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내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인 심리학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같은 내 마음을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편리한 소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학문을 깊이 알아간다고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대부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그것을 도구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내 속에 이미 있는 것이라기보다 너를 만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이 자리에 당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개설 강좌

[초등부 문학]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5강)

-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 △ 참가자 12~13세 △ 일시 1월 14~18일, 오전 10시~12시

[초등부 심리] 사람 마음속 비밀을 찾는 특별한 실험실 (5강)

- ★ 심리 실험을 통해 보는 마음 작동 원리
- △ 참가자 12~13세 △ 일시 1월 21~25일, 오전 10시~12시

[중등부 문학]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 (5강)

-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 △ 참가자 14~16세 △ 일시 1월 21~25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 참가자 14~19세 △ 일시 1월 14~18일, 오후 1시~3시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나다 (5강)

- ★ 『어린 왕자』의 아름다운 은유들을 통해서 인문학을 만나다
- △ 참가자 14~19세 △ 일시 1월 21~25일, 오후 1시~3시

[고등부 심리] 내 안에 너 있다 (5강)

- ★ 심리학의 개념에서부터 확장해가는 관계의 인문학
- △ 참가자 17~19세 △ 일시 1월 14~18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3. 강의 시간표

1주차(1/14~18)	1/14	1/15	1/16	1/17	1/18
오전 10:00~12:00	초등부 문학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오후 1:00~3:00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오후 3:30~5:30	고등부 심리 “내 안에 너 있다”				
2주차(1/21~25)	1/21	1/22	1/23	1/24	1/25
오전 10:00~12:00	초등부 심리 “사람 마음속 비밀을 찾는 특별한 실험실”				
오후 1:00~3:00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나다”				
오후 3:30~5:30	중등부 문화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				

4. 참가 신청

- 개강 : 2019년 1월 14일, 1월 21일
- 접수 : 2018년 12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3호선 독립문역 도보 5분,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
- 정원 : 모듈별 10명
- 강좌후원금 : 강좌 1종 10만원(회원 20% 할인, 납부예외 문의)
- 계좌 : 국민은행 762302-04-169524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 문의/신청 : <http://nada.jinbo.net> 방학특강 게시판, 02-324-0148, 010-7133-2305
- 후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민들레출판사, 오늘의 교육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겨울특강 “당신의 마음을 훔치는 인문학 실험실” 강좌별 소개

문학 초등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5강)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1월 14~18일, 오전 10시~12시 참고 각 강좌 제목에 적힌 책을 미리 읽고 와주세요~!

여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책장이 있습니다. “아, 또 책이야? 지켜워!” 라고요? 특하면 책 좀 읽으라는 지긋지긋한 어른들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사람들에게 책이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여겨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화영화나 웹툰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훑하고 빠져들어간 적이 있지 않나요? 재밌는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장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뒀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글자들의 미로 앞에서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재밌는 이야기가 그 길을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우리 앞에는 어떤 말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 주기도 할 그런 힘을 가진 말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반짝이는 말들을 얻기 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지 않을까요?

.....

1강_ 『치외법권 위니 공화국 회고록』, 리사 그래프, 씨드북

위니는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 명의 동네 친구들이 위니의 작은 나무집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내려가

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위니와 친구들! 아무리 힘이 센 어른이라도 100년 전 사라진 피타 지오 공화국의 땅에 있는 위니 공화국에 함부로 침입할 수도 마음대로 아이들을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부모에 대해 벌이던 이 시위는 어느새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 갑니다. “애들은 부모 말을 들어!”라고 화를 내는 어른들과 “온 세상의 어린이를 위해 절대 지지 않아!”라며 환호하는 어린이들. 세상과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2강_ 『기호 3번 안석뽕』, 진형민, 창비

특 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 ‘사이 좋은 학교’,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뻔한 말들뿐인 학생회장 선거는 참 재미도 없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학생회장들은 대체 우리의 심부름꾼인지 선생님들 심부름꾼인지... 이 지루한 학생회장 선거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후보, 기호 3번 안석뽕! 특별히 잘난 거 없는 동네 친구 셋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지?’ 그리고 품나는 선거 벽보가 탄생했습니다. “일등만 좋아하는 학교, 너나 가지삼! 일등부터 꼴등까지 다 좋아하는 학교, 우리가 만드셈!”

3강_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진형민, 창비

“엄마, 나 만 원만 주면 안 돼?” 용기 내 엄마에게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돈이 땅을 파서 나오는 줄 아냐?’, ‘쪼끄만 게 돈 쓸데가 어디 있다고’, ‘용돈 받은 건 어찌고?’, ‘돈 맡겨놨어?’ 같은 말들뿐. 좋아, 주지 않겠다면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어, 그런데 대체 돈을 벌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동네 집주인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잘 벌던데, 우리는 전단지를 이렇게 열심히 돌렸는데 왜 돈을 벌기가 힘들까요?

4강_ 『순재와 키완』, 오하림, 문학동네어린이

소중한 친구의 목숨과 인류의 발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를 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위대한 연구를 성공시킬 수 있고, 전 인류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발전을 일으킨 당신이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와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멋진 옵션도 있지만, 이 소중한 친구와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없게 되겠지요. 그 때 누군가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재 하나만 없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걸?’ 이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를 희생하더라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걸까요?

5강_ 『엄마가 남긴 27단어』, 샤렐 바이어스 모란빌, 아름다운 사람들

무대 위에서 멋진 옷과 모자를 차려입고, 마법을 부리던 ‘위대한 알리기에리’씨가 바로 코비 알리기에리의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사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멋지고 비밀스러운 진짜 마법을 부릴 수 있지만 이건 오직 코비만 아는 비밀입니다. 5년 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는 여행을 떠나기 전 마법의 힘을 가진 27개의 단어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엄마가 떠난 뒤 혼자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법을 부려 코비와 주변 사람들을 지켜줬던 단어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심리 초등

사람 마음속 비밀을 찾는 특별한 실험실(5강)

★ 심리 실험을 통해 보는 마음 작동 원리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1월 21~25일, 오전 10시~12시

여러분은 혹시 '심리학'에 관심이 있나요? SNS에서 쉽게 공유되는 심리테스트들과 MBTI 같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검사들을 떠올려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 마음과 머릿속의 활동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리'라는 말만 보면 눈을 반짝이는 걸까요? 아마 심리학에 대한 이런 관심은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실험들의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말이 틀렸을 때 계속해서 우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나쁜 것들에 쉽게 중독되어버릴까요?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는 없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독일사람들은 왜 나치가 된 걸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끔찍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에서 심리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비밀은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했지만 가끔은 사람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었다나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꿰뚫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하루에도 수십 번 보게 되는 광고 속에도,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도 심리학의 비밀들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스스로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심리학자들이 비밀을 풀기 위해 했던 실험들을 통해서요.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역시 실험에 참가하게 될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은 박사와 연구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 실험의 결과 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நா다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1강_ 종소리와 파블로프의 개 : 사람을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

과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 종을 울렸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개는 먹이가 나오기 전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이후 스키너라는 심리학자는 상자 속에 쥐들을 가두어 어떤 실험을 하고 난 뒤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만 달콤한 보상을 준다면 쥐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솔깃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 말썽꾸러기들도 얼마든지 얌전하고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던 스키너의 실험을 함께 살펴봅시다!

2강_ 네 가면은 몇 개니? :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멋진 주인공이 악당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주인공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어막이 악당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저런 투명한 방어막이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여리디여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 방어막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자동 발동되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이랍니다. 하지만 방어막이 영성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3강_ 외계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움직일까?

“1954년 12월 21일, 세상은 대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신 사난다를 믿는 자들은 커다란 우주선을 통해 구원받을지니...” 외계인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시에 따라 자신의 재산도 가족도 다 버린 사람들이었지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던 페스팅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궁금해졌습니다. 12월 21일 예언의 순간에 비도 내리지 않고, 우주선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돌아갈 곳도 없어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18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멸망은 오지 않은 듯하네요. 페스팅거가 찾아갔던 그 계시의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강_ 행복한 쥐들의 나라 : 중독의 원인을 찾아서

중독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같은 것들에 중독되어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올라왔어요. 설 새 없

이 욕을 내뱉으며 좀비 같은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떠날 줄을 모르는 이 사람들. 게임의 자극성과 폭력성이 이 사람들을 중독 상태로 이르게 했다는 어른들 앞에 한 심리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쥐 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겠다는 이 사람은 중독의 원인이 게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게임이 아니면 중독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5강_ 밀그램 박사의 못된 실험 : 우리 마음속에도 악마가 숨어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단지 히틀러와 몇몇 간부들이 아닌 독일의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치를 따르며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내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나요? 혹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악마가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밀그램 박사는 사람들의 본심을 알기 위한 실험을 하나 고안했어요. 조심하세요, 이 실험의 결과를 알게 된다면 조금 아플지도 몰라요.■

문화 중등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5강)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1월 21~25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마블코믹스는 DC코믹스와 함께 오랜 기간 미국만화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에 문화적 파급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한국의 어른들도 중년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만화나 게임, 영화 등을 통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등을 접하고 자란 기억이 있을 정도니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나라와 세대를 넘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100년이 다 된 마블의 구닥다리 히어로들이 현대와 와서 오히려 그 인기를 더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초인임에도 평범한 인간처럼 고뇌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쩍 화려해진 CG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들에게는 그것이 만화든 스펙터클한 영화든 언제나 시대를 관통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세상의 모습이 투영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기도 했고요. 사실 그 어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나 고민이라도 만화적 상상력이 결합하면 더 쉽게 공감되고 이해되는 묘한 힘을 가지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게 마블은 언제나 시대에 맞는 히어로들을 창조했고, 또 기존의 히어로들을 변화시켰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블의 작품들은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블의 히어로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질문을 끄집어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인문학이란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히어로들을 만나고 나면, 마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

1강_ 가장 이상한 슈퍼히어로들 : 엑스맨, 돌연변이라는 정체성

엑스맨의 세계에서 어떤 인간들은 돌연변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 하며 심지어는 없애려고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경계하며 지배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실 건가요.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돌연변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연변이를 혐오하는 인간과 공존할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실 건가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번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어요.

2강_ 철갑의 페르소나 : 누가 진짜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은 누가 봐도 슈퍼 히어로지만 그 안의 토니 스타크는 한낱 나약한 (비록 돈이 많지만) 인간에 불과합니다. 즉, 아이언맨은 슈트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비스 같은 첨단 기술로만 존재할 수 있는 히어로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아이언맨까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토니 스타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에는 기계장치만 가득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이언맨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진짜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그가 입는 슈트 혹은 자비스가 아닐까요?

3강_ 때로는 헐크가 되고 싶어 : 헐크, 분노의 심리학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내가 무엇이 되는지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화가 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이것은 히어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초록색 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감마선에 노출되지 않아도 때로는 헐크가 되는 혹은 되고 싶은 누군가(혹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괴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록색 괴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4강_ 타노스의 선택 : 절반의 생명을 희생시킨 정의

타노스가 스톤을 모으는 이유는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단순히 잔인한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우주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50%의 생명을 위해 50%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타노스의 계획. 그의 계획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어차피 어벤져스가 지켜줄 거니까 그런 고민은 필요 없다고요? 에이~ 하지만 어벤져스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5강_ 히어로 vs 히어로 :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끝장토론

영화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의 원작인 마블코믹스 <시빌 워>는 초인들이 대중에게 신분을 공개하고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히어로들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소코비아 협정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결국 찬반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단! 대답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h1>입문</h1> <h2>중고등부</h2>	<p>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5강)</p> <p>★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분들을 초대합니다</p>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1월 14~18일, 오후 1시~3시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anitas(인간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인간’이라는 동일률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만 몰라본 게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속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은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대상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를 좁혀나가기 이전에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 즉 ‘거리두기’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나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공부든 기본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태도 없이는 학문적인 성취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부에, 특히 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공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인문학적 사고가 실종된 공부의 과정은 공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다에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인 셈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강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싸움의 흔적이 강좌를 마친 자리와 강좌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화려한 영상은 굳이 활자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딱 짜인 아이들의 일과는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인 문학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은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문학책을 던져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번역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문학의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혹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2강_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꼬마 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멋지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진 꿈, 누군가에게 강제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향한 열망은 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직과 구속을 꿈꾸며, 평등을 멸시하고 자유롭지 않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잃어버린 꿈의 마지막 조각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만나봅니다.

3강_ 대중문화, 가린 것을 벗기고 숨긴 것을 드러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대중문화가 문화 일반의 영역만큼 (어떤 의미로는 그 이상으로) 넓어진 지금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한의 근거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권위를 통한 강제적인 단절은 반감(反感)까지 더해진 욕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심스런 접근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를 통해 대중문화의 전혀 새로운 재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재일지도 모릅니다.

4강_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지만 광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노출시키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광고는 알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이미지와 문구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주부들은 사지도 못할 고급 냉장고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왜 아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눈을 빼앗기는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강_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좀 으스스하지만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언젠가 한번쯤은 모비어스가 나타나 속삭였을 법한 물음...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혹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상이라는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입문 중고등부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나다(5강) ★ 『어린 왕자』의 아름다운 은유들을 통해서 인문학을 만나다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1월 21~25일, 오후 1시~3시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났을까요? 모든 집의 책꽂이에 한 권쯤은 꽂혀있을 것만 같은 그 책, 서점에 가면 ‘청소년을 위한 추천 도서’ 진열대에 빠지지 않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책, 학교에서 추천하는 필독서 명단에도 자주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책의 주인공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는 이렇듯 낯선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를 떠올릴 때면 느껴지는 아련하고 신비한 이미지는 그를 가까운 친구처럼 마냥 편안하게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괴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낯설고 신비하고 이상한 그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작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를 그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비한 이야기로만 읽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가가 자신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찾아낼 수 없도록 일부러 꾀꾀 숨겨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 우리는 문학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 왕자』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많은 은유가 있어 ‘어린 왕자’의 은유를 둘러싸고 그 존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학의 은유를 읽는 일은, 은유와 은유의 연관, 은유와 세상의 연관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는 일은 꽤 재미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어린 왕자』처럼 수수께끼 같은 은유가 잔뜩 널려있는 책을 읽는 재미는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1강_ 어린 왕자는 누구일까?

『어린 왕자』를 읽고도 어린 왕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그 아이의 황금빛 머리칼이 보이지 않나요? 어린 왕자는 어쩌면 당신 곁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2강_ 사막이 아름다운 건...

이제는 사막에 도시도 만드는 시대라지만 우리에게 사막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만났던 사막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찬란한 도시도, 이 도시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도, 현실이라는 사막이며 사막의 모래알이라고 어린 왕자는 속삭입니다.

3강_ 양을 쫓는 모험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가 처음 건넨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림 속의 양이 자신의 별을 위협하는 바오밥 나무의 어린싹을 미리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니,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4강_ 누군가의 별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 여섯 개의 별들과 각각의 별에 사는 여섯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왕과 모두가 자기를 경배해야 한다는 허영쟁이, 늘 술만 마시는 술꾼과 별 모으느라 바쁜 사업가, 설 새 없이 가로등만 켜다 껐다 하는 사람과 가보지도 않고 기록만 하는 지리학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5강_ 이 세상 단 하나 뿐인 나의 장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둘도 없는 친구나 애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특별히 나에게 잘 어울리도록 타고 난 것일까요?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심리 고등

내 안에 너 있다(5강)

★ 심리학의 개념에서부터 확장해가는 관계의 인문학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1월 14~18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위계적이고 경쟁적으로 짜인 직업이나 여타의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속에서 진실한 친구 하나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내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인 심리학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같은 내 마음을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편리한 소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학문을 깊이 알아간다고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어찌면 애초에 대부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그것을 도구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내 속에 이미 있는 것이라기보다 너를 만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이 자리에 당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1강_ 슬픔을 잊어버린 이에겐 기쁨도 없다 :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심리학에 다가가기에, 아니 나의 마음에 다가가기에 가장 적절한 한 편의 애니메이션. 슬픔이 떠나면 기쁨만 남을 텐데 왜 이야기 속 기쁨이는 슬픔이를 찾기 위해 갇은 애를 쓰는 걸까요?

2강_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니? : 대상관계이론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행동의 원인은 과거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

면 현재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미래의 나를 좌우할 수도 있겠군요.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행복한가요?

3강_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 무의식

당신은 당신의 욕망에 충실한가요? 만약 욕망의 충족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참고 사는 누군가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드러내기엔 부끄럽지만 포기하기엔 너무나 간절한 딜레마를 품은 욕망의 상자를 살짝 들여다봅시다.

4강_ 알다가도 모를 너의 마음 : 방어기제

가장 멋진 가면을 써야만 가장 멋진 어른이 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지 않기 위해 누구나 가면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 너머에는 우리의 진짜 얼굴이 남아있을까요?

5강_ 여우와 신포도 : 인지부조화

너무나 먹고 싶었던 달콤한 포도였지만 너무 높아 따먹지 못하면 신포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여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겨울특강 소개 마침■